

【 2019.4.12(금) 강원일보 】



건설협 구호성금 기부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오인철)는 11일 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본회와 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서울·경기·인천·경남·경북도회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1억6,000만원 상당의 도내 산불피해 구호성금을 전달했다.

【 2019.4.12(금) 강원도민일보 】



대한건설협회와 도회 등 6개 시·도회,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건설단체총연합회, 건설공제조합은 11일 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6000만원의 산불성금을 기탁했다.



유주현 건협 회장(왼쪽 세 번째)과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 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건설업계, 강원도 산불피해 지원 앞장

건협·강원도회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6억 전달

대한건설협회는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와 함께 11일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춘천소재)에 강원도에서 발생한 동해안 대형 산불에 따른 피해시설 긴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1억6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한건설협회 본회(3000만원), 건설공제조합(3000만원), 건설산업사회 공헌재단(2000만원), 강원도회(2000만원), 서울시회(2000만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1000만원), 경기도회(1000만원), 경남도회(1000만원), 인천시회(500만원), 경북도회(500만원)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고성, 강릉, 속초, 동해 등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우선 지원될 예정이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이 참석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은 “강원 동해안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이재민에게 위로를 표현했다”며 “화마로 인한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향후 도내 건설산업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 대형 산불로 인한 재해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